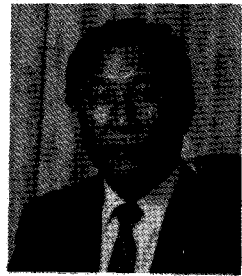


# 규모의 갈등, 자본의 집중, 유통의 마찰조정이 급선무



강 성 원  
한국낙농육우 협회 회장

월간 양계”지의 창간 23주년을 중심으로 축하합니다. 23개 성상이라는 짧다고 할 수 없는 세월이 뒷받침되기도 하였겠으나 그 내용과 체제의 실속있고, 유려함에 우선 감탄을 발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나 다른 분야의 잡지를 만드는 사람보다 특별히 심혈을 경주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을 따라 잡기 위해 세월을 압축하여 몸으로 마음으로 달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지요.

“월간양계”는 양계산업을 위한 기술과 정책의 제시 그리고 정보매체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왔다는 사실도 평가할만 하였지만 그 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잡지를 통

하여

첫째, 양계산업의 방향이 잡혀왔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방향조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둘째, 1962년 “한국가금협회”를 발기한 이후 여러가지 조직의 분화(分化)단계를 거쳤지만 1969년에 이 잡지의 창간을 계기로 하여 양계인의 실질적인 조직화가 시작되고 1973년 6월에 드디어 대통합을 이루어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의 창립을 가능케 했다는 점

셋째, 양계인의 공동운명체적 인식을 보편화하고 단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조직을 공고히 하는 것을 선도하고 있다

는 점

넷째, 양계인 상호간의 교류와 화합을 촉진하는 편집에 주력함으로써 양계인을 단순한 양계농가가 아니라 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게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점

다섯째, 직접적인 지도사업과 잡지를 연계시키는 힘든 일에 성공적인 공감대를 키워가고 있다는 점.

등 “월간 양계”는 농민운동의 핵심체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귀지(貴誌)가 늘 우리들 소(牛)기르는 사람들까지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저의 기쁨입니다.

발행인이 1969년 11월 창간호에서 내세운 목표 즉,

1. 국내외 양계정보의 교환
2. 양계인 상호간의 대화 협력
3. 경영과 시장정보의 신속한 전달

등은 이미 넘칠만큼 이룩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축산인들은 수입완전개방이라는 구체적 추세속에 사고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계는 타축종에 비하여 비교적 유리하다는 판단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쉽게 안심해도 될 처지만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우리 농업의 어떤분야도 거의 예외 없이 기계화, 자동화의 기본틀을 채택할 수 밖에 없는 시대에 접어 들었으며, 특히 축산은 어떤 의미에서는 장치산업화 되어가고 있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계화 자동화의 과제들은 첫째,



규모의 문제 둘째, 자본의 문제 셋째, 유통구조의 문제 등을 몰아 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은 ① 장치수준의 차이와 규모의 차이가 몰고 올 구조적 갈등 ② 자본의 집중과 이로 인한 알력(軋轢) ③ 농민의 유통구조 참여에 따르는 기득권과의 마찰 등 주요 문제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을 꿰뚫어보고 대책을 세운다면, 그래서 그 난관을 뛰어 넘기만 한다면 ①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② 국제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③ 따라서 우리나라 축산은 뿌리를 내리게 되고 안정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제를 판단하고 해결하는데 “월간 양계”지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쾌히 그러하리라 믿고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귀지의 창간 23주년을 축하하며 많은 축산지를 이끌어 주시는 잡지가 되도록 기원합니다. 양계